

# 이광수 기행문의 인식 구조와 민족 담론의 양상

김경미\*

|| 차례 ||

- I. 서론
- II. 식민지 지식인의 이중 인식과 문명 담론의 양가성
- III. 민족의 복원과 생활의 인식
  - 1. 역사의 재인식과 '민족'의 복원
  - 2. 생활 기행의 의미와 국토의 재인식
- IV. 순례로서의 기행과 '역사 내러티브'의 구성
- V.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식민지 이광수의 문학 중에서 기행문에 나타난 식민지 지식인의 인식 구조와 여행의 여정에서 발견되는 역사의 기억을 통해 나타나는 민족 담론의 양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의 기행문은 각 시대별 식민주의 정책을 전유하면서 민족 담론을 형성하였다.

1910년대 해외 기행문에서 이광수는 문명을 통한 제국의 식민화 논리의 이중성을 제시하고, 문명을 흡수하는 상해의 중국인들이 제국의 질서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양가성의 순간을 포착한다.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의 위상에 감탄하는 식민지적 무의식과 야만적인 조선을 비판하는 식민주의적 의식이 동시에 드러나기도 하고, 당대 제국의 식민주의자들의 이중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1920년대 기행문에서는 민족의 공동된 역사적 '기억'을 끄집어내어 사라져가는 민족정체성을 구성하고 상상의 공동체인 민족을 복원하기도 한다. '궁예'와 망국에 대한 비분강개를 보여준 '마의태자'의 역사를 현재의 조선 상황에서 재구성하여 대중을 인식시킨다.

\*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한편으로는 조국강산의 자연에 대한 실용적 인식을 드러내는데, 이는 ‘일생의 진로’였던 지도자의 삶과 연관되는 것이다. 1920년대 조선인의 문화와 생활, 민족성 위에 형성된 이광수의 기행문의 민족 담론은 여정에서 만난 농민들의 궁핍한 생활을 통해 사회제도를 비판하고 당대 문화정책의 모순성과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1930년대 순례로서의 기행문에서는 이순신의 위패를 관우의 사당에 모신 사대사상을 비판하면서 역사 보존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평양의 단군릉을 민족의 시조이자 기원으로 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여정에서 발견한 역사의 기억을 ‘역사 내러티브’로 구성하여 조선인의 집단기억을 생생하게 전파하고자 한다. 역사 내러티브는 언어로 이야기된 집단기억의 표상으로 당대 민족 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번제를 올리는 제사장’으로서, ‘일생의 진로’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서 시작된 기행문은 조선의 국토에서 조선인의 삶과 공통된 역사와 기억을 통해 민족 담론을 형성하고자 한 식민지 주체의 민족 복원의 과정이기도 한 것이었다.

주제어: 이광수, 기행문, 양기성, 민족 복원, 민족 담론, 역사, 내러티브, 집단 기억

## I. 서론

이 논문은 식민지 이광수 문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기행문에 나타난 식민지 지식인의 인식 구조와 여행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역사의 ‘기억’을 통해 ‘민족’ 담론의 양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광수의 기행문은 크게 해외 기행문과 국내 기행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골고루 작성되었다. 1910년대에 작성된 기행문들은 대부분 해외 여행으로 문명에 대한 식민지 지식인의 이중적 인식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1920년대의 기행문은 대부분 국내의 자연을 통해 역사를 인식하고 국토를 재발견하여 민족을 복원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1930년대 기행문은 역사적 인물의 흔적이 있는 곳의 순례를 통해 역사를 재구성하는 서사의 방식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식민지 근대 이광수의 기행문이 다양한 시각과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그러한 다양한 시각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민족’을 구성하고자 하는 이광수의 인식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익히 알다시피 이광수는 ‘민족’을 자신의 삶과 문학을 대표하는 화두로 삼았던 작가였다. 이광수 문학사 전체를 통괄하는 ‘민족’ 담론은 각 시기별로 조금씩 변별된 양상을 보인다. 즉 그의 민족 담론은 식민주의 담론과 상호 역학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10년대 민족 담론은 사회진화론에 근거를 둔 문명화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는 세계적 추세와 일제의 식민주의 정책을 전유하면서 문화론에 근거를 둔 민족 담론을 형성하였다. 193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일제의 신체제론을 수용하면서 대동아공영을 위한 황민화론을 자신의 민족 담론으로 확대 재생산하였다. 이 시기의 그의 민족담론은 굴절된 국가주의와 맞닿아 있었다. 이러한 식민시기에 작성된 그의 기행문에 드러난 민족 담론의 양상 역시 시기별로 내포된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이광수의 기행문은 1910년대에는 「상해서」(『청춘』 3호, 4호, 1914.12~1915.1), 「해삼위로서」(『청춘』 6호, 1915.1), 「동경에서 경성까지」(『청춘』 9호, 1917.7), 「남유잡감」(『청춘』 14호, 1918.6)과 「오도답과기행」(『매일신보』, 1917.6.29~9.8)<sup>1)</sup>이 있다. 1920년대 기행문으로는 『금강산유기』(『신생활』, 1922. 3.~8.), 『초향록』(『동아일보』, 1923.9.9.~17.)이 대표적이다. 1930년대 이후에 쓴 기행문은 「충무공 유적순례」(『동아일보』, 1930.5.2 1.~6.8), 「신주승전봉과 권율도원사」(『동아일보』, 1931.8.13~18), 「노령 정경」(『동광』, 1931.10), 「자연으로 본 경성」(『신가정』, 1933.2), 「함포 풍경」(『동아일보』, 1933.4. 19.), 「만주에서」(『동아일보』, 1933. 8.9.~23.), 「단군릉」(『삼천리』, 1936.4), 「동경구경기」(『동광』 2권 9호, 1936.9.), 「국

1) 이 글에서는 관보의 성격이 짙은 「오도답과기행」은 텍스트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관에서 진행시킨 기행으로써 민족 담론을 해석하는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본고에서는 논외로 하였다.

기관 씨름, 『은좌』(『동광』 11호, 1936. 11.), 『농사학교와 고려신사』, 『가부기극』(『조광』, 1937 신년호)이 있다. 주로 1910년대에서 193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기행문이 작성되었고, 1937년 이후에는 기행문을 쓰지 못했다. 일제의 신체제론으로 향하는 시기에 기행문이 작성되지 않은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으로서의 기행문을 더 이상 쓸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광수의 기행문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다. 먼저 김현주<sup>2)</sup>는 근대 초기 기행문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탐구하여 기행문이 문학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다. 그중 이광수의 『금강산유기』는 심미적 이상이 투영되어 만들어진 감각적 가상이라고 분석하면서 심미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기행문이 문학으로서 가치를 지니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 논문은 이광수의 『금강산유기』가 문학적 텍스트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고 있다. 서영채<sup>3)</sup>는 최남선과 이광수의 금강산 관련 기행문을 텍스트 차원에서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광수는 근대적 미학자의 시선으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고, 최남선은 금강산을 통해 민족의 신화를 읽어내는데, 이는 자연을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에서 미학적이고 역사학적인 차이가 발생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 논문은 같은 자연물을 두고 다른 방식으로 쓴 기행문의 차이에 초점을 두으로써 미학적 인식과 역사적 인식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차이’에 주목하게 됨으로써 기행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외시키고 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이광수의 기행문 중에서 『금강산유기』를

2) 김현주, 「근대 초기 기행문의 전개 양상과 문학적 기행문의 기원」, 『현대문학의 연구』 16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1.

3) 서영채, 「최남선과 이광수의 금강산 기행문에 대하여」, 『민족문화사연구』 24집, 민족문화사연구소, 2004.

집중적으로 분석한 복도훈<sup>4)</sup>은 『금강산유기』에서 드러난 민족과 국토 표상의 미적, 정치적 의미를 통해 이광수의 문화 민족주의가 낭만적 자아에서 곧바로 이광수 특유의 숙명론적 자아의 유랑기로 통합되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필자가 이광수의 자연에 대한 미적 인식이 실용적, 합리적 인식과 연결되는 과정이 논리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결론의 타당성도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이광수의 기행문에서는 『금강산유기』에 초점을 두고 논의되고 있어서 그의 전체 기행문이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는 일관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개별 논의들을 수용하여 공시적 관점뿐 만 아니라 이광수 문학의 전시기에 쓴 기행문을 통시적 관점으로도 살펴봄으로써 기행문에 나타난 식민지 지식인의 인식 구조의 양가성과 여행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역사의 기억을 통해 드러나는 민족 담론의 양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먼저 이광수의 1910년대 초기 해외 기행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식민지 지식인의 식민주의적 인식과 식민지적 무의식의 이중성이 당대 민족 담론과 어떤 관계로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의 국내 기행문에서는 여행과정에서 드러나는 역사의 공유된 기억을 통해 민족을 새롭게 복원하고자 하는 이광수의 문화적 민족 담론의 양상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는지를 밝혀볼 것이다.

## II. 식민지 지식인의 이중 인식과 문명 담론의 양가성

1910년대 이광수는 잡지 『청춘』에 기행문 「상해서」, 「해삼위로서」, 「동

4) 복도훈, 「미와 정치: 낭만적 자아에서 숙명적 자아로의 유랑기-이광수의 『금강산유기』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46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2.

경에서 경성까지」를 시리즈로 연재한다. 당시 이광수는 일본 유학을 마치고 조선에 귀국해 오산학교 선생으로 재직하다가 그만두고 방랑의 길을 떠나게 된다. 무작정 떠난 여행에서 상해와 해삼위는 식민지인이자 일본 국비 유학생이었던 이광수의 눈에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이광수는 1913년 12월에 상해로 떠난다. 상해는 중국이 아편전쟁의 패배로 난징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다섯 항구를 개항하게 되는데 그중 상해는 영국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1845년에는 영국 조계, 1846년엔 영미 공동 조계가 설치되고, 이어 프랑스 조계가 승인되었다. 삼국의 경계아래 있었던 상해는 세계의 상품과 은행, 최첨단 문명이 자리잡기 시작한 세계적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제국의 문명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곳에서 이광수는 문명의 이중성과 제국주의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관찰해 내고 있다. 상해를 바라보는 이광수의 시선은 일반적인 ‘식민지인의 무의식’적인 시선만도 아니며, 도교의 문명을 익숙히 배우고 온 유학과 식민지 지식인의 ‘식민주의적 의식’만으로도 해석이 불가하다.

이광수는 『상해서』에서 상해의 중국인들이 제국의 문명에 젖어 주어진 것들이 자신의 것인 양 여기는 모습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국의 질서 내부에 안주하지 않고 제국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하는 순간들을 정확히 포착해 내고 있다.

중국은 정치상, 경제상 어느 방면으로나 완전한 자주가 없건마는, 그 중에도 가장 통신했 바는 소중학교가 전혀 영문으로 교수(教授)하고 교사까지도 영어로 설명함이니, 불쌍하고 철없는 그네들은 제 나라 말 모르고 영어 잘한다는 말 듣기를 영광으로 여기어 제 국수를 잃어버리고, 두루몽실히 중국인도 아니요, 양인도 아닌, 말하자면 사이비 양혼에 침염된 것이로소이다. 그러하오나 그네가 그 배운 외국어로 신서적을 박람하여 신문명을 흡수하려 함이면 오히려 가할 것이언마는 그네가 영어를 힘쓴은 대부분 해관(海關)같은데서 영인의 구사(驅使)받는 통사나 되려 함이니, 유자(遊子)의 방관하는 소견에

도 참 딱하여이다.

상무인서관에서 또 놀란 것은 번역과 사전의 사업이라. 대개 어떤 민족의 문명의 초기는 외국서적의 번역과 사전의 편찬으로 비롯하니, 현금 중국에 이것이 필요함은 물론이로소이다. 서가들 죽 둘러보건댄, 초등, 고등의 제반 과학 서류와 철학, 문학, 사조에 관한 서적이 거의 수십백종이나 중국문으로 번역되었사오며, 사전류 거의 완비할이만큼 편성되었거이다. 서양인의 손을 빌어 겨우 한영(韓英)사전(字典) 한권을 가지고 전세계가 들떠드는 톨스토이, 오이켄, 베르그송이며 비행기, 무선전신에 대한 사오백글도 못가진 조선인 된 나는 남모르게 찬 땀을 흘리었다.<sup>5)</sup>

위의 인용문은 중국인이 자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초등학교에서 부터 영어로만 교육하는 모습에 사이비 양혼이 침염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영국이 상해를 제국의 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전파한 영어를 열심히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살리기 위한 기본적인 번역작업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즉 제국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제국의 문명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과 접목시키는 모습은 제국이 규정해 놓은 질서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질서를 벗어나고 있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이광수는 상해의 중국인이 제국의 문명을 적극적으로 모방하는 모습뿐 만 아니라 그 수행적 과정에서 드러나는 차이와 이탈의 모습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문명을 수용하는 중국인들의 양가적 모습을 읽어내는 이광수는 당대의 제국의 문명 담론이 가진 이중성과 그것의 전복의 가능성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그는 서양 제국들, 삼국의 지배로 인해 모든 것들이 서양화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해의 중국인들은 오히려 그들의 자국 정신을 지키는 모습을 정확히 관찰해 내고 있다.

5) 이광수, 『상해서』, 『이광수전집』 9권, 삼중당, 1972, 134쪽.

순 양식 시가안에 순(純)양인(洋人)을 고객으로 보면서도 상포의 결구와 설비를 기어코 중국식으로 하고 전등은 켈망정 촛불도 버리지 아니하며, 머리는 깎을망정 선왕의 의관을 버리지 아니하며, 설혹 양장을 하더라도 동쪽끼리는 고래의 예의를 지키며, 이를 보수라든가 완고라든가, 나뻘 말하자면 말할 수 없음이 아니로되 제 본색을 잃지 아니하지는 미질임을 누려 반대하오리이까? 원숭이 나라에 성장한 나는 이에 수취한 생각을 금치 못하였나이다.<sup>6)</sup>

제국의 문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상업 도시로, 국제도시로 탈바꿈한 상해는 제국의 문명이 제대로 이식된 대표적인 도시이다. 이런 곳에서 그들은 제국이 가져다 준 문명을 적극적으로 모방하여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모습을 보인다. 양인을 상대로 하는 상업 도시인 상해의 중국인들은 문명의 수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들의 뿌리인 중국의 문화와 정신을 쉽게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국제적인 도시, 제국과 식민이 뒤섞인 당대 세계체제의 축소판인 상해에서 양인을 고객으로 양인들의 시가에서 중국의 의관과 문화의 양식을 잊지 않는 것은 제국의 문명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중국인의 ‘아이러니적인 타협’이라 할 수 있다.

1910년대 이광수는 제국주의 이중성을 정확히 직시한 식민지 지식인이었다. 그것은 상해의 “매독의 범람이 곧 문명”<sup>7)</sup>이라는 인식을 통해서도 제국주의의 이율배반적 이중성을 여실히 간파했으며, 삼국체제의 상해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인도 순사와 안남인 순사의 모습을 통해서도 제국의 힘의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의 힘의 논리와 이중성을 간파한 식민지인의 의식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침몰되고 있는 상해의 중국인들에게서 이광수는 전복의 가능성을 읽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상해가 제국의 문명화 세계로 진입하여 적극적으로 그들의

6) 이광수, 『상해서』, 위의 책, 134쪽.

7) 이광수, 『상해서』, 위의 책, 134쪽.

질서를 모방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질서에 포섭되고 있지 않다는 것, 미시적인 이탈과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식민지 지식인인 이광수가 정확히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식 속에서만 식민지 지식인인 자신을 돌아보며 “원숭이 나라에 생장한 나는 이에 수취한 생각을 금치 못하였나이다.”라고 자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가성에 대한 인식은 문명의 낙관적 전망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던 그의 대표작 『무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정』에서 문명에 반하는 인물인 구여성 영채와 영채의 아버지인 박진사는 서사 과정상에서 배제되어야 할 인물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서사 과정에서 서술자는 영채를 배제의 대상이 아닌 수용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감싸 안고 있으며, 구세대의 인물로 표상되는 박진사의 정신과 삶의 자세에 대한 서술 역시 문명화론과 충돌하면서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려지고 있다.<sup>8)</sup> 기행문 『상해서』에서 보여준 이광수의 문명에 대한 양가적 인식이 소설 서사의 수행적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상해서』에서 이광수는 문명을 통한 제국의 식민화 논리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인식했으며, 문명을 받아들이는 상해 중국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혼성성의 순간, 제국의 질서 내부에 가두려는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까지도 읽어내고 있다. 상해 문명의 양가성을 목도한 이광수는 치타로 가기 위한 여정에서 해삼위를 거치게 된다. 러시아 의용함대 포르타와호를 타고 상해와는 다른 해삼위로 향한다. 기행문 『해삼위로서』는 러시아 함대위에서의 여정과 감상이 주를 이룬다. 이광수는 동양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배 위에서 공사로 바뀐 양인들의 모습과 그들과는 다른 식민지인인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된다. 식민지적 무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공

8) 『무정』에 나타난 문명화론의 양가성은 김경미 『이광수 문학과 민족 담론』(역락, 2011)을 참고.

간에서의 여정은 제국주의에 대한 위상에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발가벗긴 식민지인만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뿐이다.

양인의 옷이라고 반드시 내 것보다 나은 것은 아니며, 내 옷 입은 꼴이 반드시 양인보다 자리가 잡히지 아니함은 아니로되, 자연히 양인은 부귀의 기상이 있고 나는 뼈들뼈들 양인의 흉내를 내려는 불쌍한 빈한자의 기상이 있는 듯하여, 수치의 정이 저절로 생김이로소이다. 과연 나는 아무 목적도 없고 사업도 없는 유객이요, 그네는 사사(私事)공사(公事)에 눈뜰 사이가 없이 분주한 사람이니 이만하여도 내가 수치의 정이 생김은 마땅할까 하노이다.(중략 인용자) 그래도 만리 상벌에 낙무함을 보지 못함은 과연 세계를 정복하기에 익숙한 민족의 흥중이 특별히 우리네와 달리 웅장한 듯하여 감탄하기를 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네는 과연 정복자요, 치자인 지위에 서서 우내 도처에 횡행할 보하는 분네들이니, 그네의 이마의 주름과 머리의 센 터럭도 다 무슨 분투에 의 흔적과 중대한 의미가 있는 듯하여 자연히 엄엄하게 보이더이다.<sup>9)</sup>

중류에 맨 어느나라 군함에서는 나팔(喇叭)을 불고 북을 치고 새새 국가(國歌)를 이되고 체조도 하나이다. 우리는 멍하니 이 광경에 취하여 각각 다른 가슴이언미는, 거의 같은 가지 공상을 그리면서 어느새 플라와 팔천여경 되는 본선에 와 닿았나이다.<sup>10)</sup>

위의 첫 번째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광수는 특별한 이유도 근거도 없이 식민지인이면서 황인종인 자신이 양인보다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식민지적 무의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은 양인만 출입할 수 있는 갑판에 중국인 복장대신 양복만 입으면 출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문명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도 존재할 수 있는 대단한 위상으로까지 여기게 된다. 중국인과 서양인

9) 이광수, 『해삼위로서』, 『이광수전집』 9집, 삼중당, 1972, 137~8쪽.

10) 이광수, 『해삼위로서』, 위의 책, 139쪽.

들이 마구 뒤섞여 있는 상해에서 문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보였던 것과 달리 해삼위에서의 이광수는 단지 나라 잃은 지식인의 식민지적 무의식만을 드러낼 뿐이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국가라는 실체를 가지지 못한 식민지인의 처절함과 안타까움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것은 다른 나라 군함의 나팔 소리를 듣고 국가의 부재를 절실히 느끼는 식민지인의 현재의 처지를 실감하게 하는 것이다. 해삼위에 도착하기까지의 배위에서의 여정은 식민지 지식인인 이광수 스스로가 처절하게 위축된 식민지인임을 표상하는 것 그 자체였다. 이와 비슷한 인식이 드러나는 작품으로 『동경에서 경성까지』에서 필자는 기차에서 바라보는 동경의 풍경을 동생에게 편지의 방식으로 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동경에서의 풍경인식과 경성에서의 풍경인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가 사철 옷을 지어 입는 서양목, 옥양목 등 피륙을 짜내는 부사 방적 회사의 굉장한 공장이 보인다. 어서 한강 가에도 이러한 것이 섰으면 좋겠다. 참 좋은 경치다. 네게 보여주고 싶은 경치다.<sup>11)</sup>

해가 뜨니 초라한 조선의 꼬락서니가 분명히 눈에 띄운다. 저 발가벗은 산을 보아라. 저 바짝 마른 개천을 보아라. 풀이며 나무까지도 오랜 가뭄에 투습이 들어서 계모의 손에 자라나는 계집애 모양으로 차마 볼 수가 없게 가엾게 되었다.<sup>12)</sup>

위의 첫 번째 인용문은 산근산령의 어전장역을 지나면서 문명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방적 공장을 보고 느낀 식민지적 무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부분이다. 일본의 발달된 문명에 무의식적으로 감탄하는 필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조선에도 그 문명한 모습이 생기기를 부러워할 뿐이다. 두

11) 이광수, 『동경에서 경성까지』, 위의 책, 140쪽.

12) 이광수, 『동경에서 경성까지』, 위의 책, 144쪽.

번째 인용문은 경성에 도착할 무렵 조선의 풍경을 묘사한 부분이다. 이 부분의 묘사에서도 ‘초라한 조선의 꼬락서니’나 ‘벌거벗은 산’의 서술을 통해서 식민주의적 인식을 통해 야만의 조선을 비판만 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으나, 이광수는 ‘계모의 손에 자라나는 계집애 모양’이라는 표현을 통해 식민주의자들의 이중성을 은근히 비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상해에서 문명의 양가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는 다르게 해삼위 그리고 동경에서의 인식은 문명에 대한 식민지적 무의식으로만 드러날 뿐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야만의 땅에 문명이 이식된 상해와 양인의 모습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준 해삼위와 동경의 여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여정에서 드러난 이광수 인식 모두가 식민주의 담론인 문명화론을 전유하면서 형성된 1910년대 이광수의 민족 담론의 양상인 것이다. ‘새누리의 도인’으로 설정된 문명화론을 전유한 이광수의 민족 담론은 단지 낙천적인 준비론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문명의 이중성을 직시하고 식민지인의 양가성인 전복의 가능성을 읽어내는 이광수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 Ⅲ. 민족의 복원과 생활의 인식

#### 1. 역사의 재인식과 ‘민족’의 복원

1910년대 ‘문명’이 힘의 논리로 득세하던 시대의 담론은 1920년대를 맞이하면서 문명, 물질보다는 정신의 중요성을 부각하게 된다. 1920년대 일제의 식민주의 담론이 추구한 문화론의 핵심인 민족성과 정신에 대한 강조는 식민지 조선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1920년대 그의 기행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광수는 1922년 금강산 여행길에 오른다. 이광수는 금강산 여행의 동

기를 허영숙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 첫 번째가 번째를 올리는 ‘제사장’의 심경<sup>13)</sup>이며, 두 번째가 자신의 영(靈)의 세례를 받아 일생의 진로를 정하고자 함<sup>14)</sup>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자신이 스스로 밝힌 동기처럼 『금강산유기』는 이러한 두 가지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난다. 여행의 출발은 남대문역에서 원산행 기차를 타면서 시작된다. 그 여정에서 보이는 철원은 그가 제사장으로서는 느끼는 감회의 첫 공간이다.

철원은 본고구려 모을동비현으로서 고구려말년에 일대의 영웅 궁예의 나라 태봉의 수부되었던 곳이다. 읍에서 북으로 이십 칠리 허에 궁예 서울인 풍천원의 토성터가 있다하나 차에서는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 망망한 초원 중에 있을 것은 분명하외다. 궁예는 당시 강원, 함경, 경기, 황해, 평안의 거의 전부를 점유하여 후고구려라 칭할 이만큼 세위가 육육(陸陸)하였습니다. 지금 안전에 전개된 망망한 평원은 실로 그의 말 달리고 활 익히던 터요, 삼군의 병마를 몰아 눈보라 치던 터외다. 여기 궁예가 말 달리던 천 년 전의 옛날을 생각하면 감개함을 금치 못합니다. 「산천은 의구컨만 인걸은 간데없네」 하고 탄식을 금치 못합니다.<sup>15)</sup>

이광수는 철원의 넓은 터를 보면서 민족의 공동된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다. 고구려의 옛영토에 대한 향수와 그곳을 되찾기 위해 달렸던 궁예의 모습을 기억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이 아닌 화려했던 민족의 국토로써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스미스는 “민족정체성은 공유된 기억과 운명, 문화적 단위에서 경계 짓는 신화, 기억, 상징, 가치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친근감이다.”<sup>16)</sup>라고 파악한다. 그는 공동체의 이러한 요소가 민족적 정체성을

13) 이광수, 「춘원서간문법」, (1922. 3. 25), 『이광수 전집』 9권, 삼중당, 1972, 313쪽.

14) 이광수, 「자작의 변-금강산유기 동기」, 『이광수 전집』 10권, 삼중당, 1972, 545쪽.

15) 이광수, 『금강산유기』, 『이광수전집』 9권, 삼중당, 1972, 16쪽.

16) Anthony D. Smith, *National identity*, University of Nevada Press, 1991, pp.18~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인 역사적 영토, 고향, 공동의 신화와 역사의 기억들, 공동의 문화, 멤버들의 권리와 의무 등은 에스닉(ethnic) 공동체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광수는 궁예의 역사를 통해 사라져가는 민족의 기상을 일깨울 수 있을 것으로 인식했으며, 이는 결국 상상의 공동체인 근대 민족주의를 형성하기 위한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조선인에게 필수불가결한 민족의 정당성을 부여해준다고 여겼다.

철원을 거쳐 여행을 떠난 지 5일 만에 금강산에 도착한 이광수는 명경대 조금 못 미치는 곳에서 높이 일丈(一丈)이 되는 석축성을 보면서 고려 추격군을 방비하던 마의태자를 떠올린다. 마의태자의 역사를 통해 이광수는 과거를 복원하고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환원시킨다. 정치성이 발현될 수 없는 시대에 기억을 통한 역사의 재구성은 대중의 민족의식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나말에 경순왕은 고려에 항복하기를 말하고 태자는 천년사적을 위하여 일 전으로써 사수하기를 간하다가 마침내 대사가 그르매, 표연히 수삼의 충용한 거하기를 데리고 금강산에 들어와 망국죄인으로 자처하여 마의로 일생을 마치니, 여기서부터 망군대에 달하는 이십리 동곡은 태자의 망명 초년의 은신지외다. 아마 이 석축성은 태자가 몸소 그 소수의 부하를 데리고 싸우신 곳이라. 어느 돌인지 모르나 그 중에는 태자의 등에 흐른 귀한 땀이 묻은 것이 있을 것이외다.(중략 인용자) 아마 태자는 여기 숨어 갓은 고초를 다 겪으며 회천(恢天)의 큰 기운을 서소(書宵)로 기다렸을 것이외다. 혈혈(子子)한 외모으로 돌을 모아 성을 쌓고 육군(六軍)을 저항하던 비장한 풍모이 눈에 보이는 듯 천년후의 유신으로 하여금 암루(暗淚)를 금치 못하게 합니다.<sup>17)</sup>

---

29.

17) 이광수, 『금강산유기』, 앞의 책, 21~22쪽.

위의 인용문에서는 마의태자의 우국충정을 숭상하며, 그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갖 수모를 겪은 상황을 마치 현장에서 봤던 사람의 시각처럼 생생히 재현하고 있다. 특히 석축성에 있는 돌 중 어느 것이 마의태자의 귀한 땀이 묻은 것처럼 당시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있다. 역사를 가져오는 것은 과거를 사실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필자의 이해관계에 맞는 것들을 강조, 중속, 배제의 원리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다.<sup>18)</sup> 이광수 역시 역사의 사실을 사실 그대로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새롭게 복원하기 위해 현재의 조선 현실과 부합하는 ‘망국에 대한 비분강개’를 보여준 마의태자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당대의 기억을 재생시키고 있다. 나라를 잃은 한을 품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항거하는 마의태자의 모습에서 현재 식민지 조선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이광수의 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사회집단은 동일한 기억을 공유하고, 그 기억을 통해 자기 집단에 대한 귀속감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기억공동체의 성격을 띤다. 어떤 사건이 한 집단의 공동체적 기억 속에 뿌리를 내리려면, 그 사건에는 그 집단만의 독특성과 지속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 독특성이란 그 집단만이 간직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고유한 속성들을 의미한다.<sup>19)</sup> 집단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불러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상황에서 재구성하여 현재의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된 기억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식은 바로 과거 기억의 집결체인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다. 여행의 과정에서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의 역사의 기억은 민족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을 환기시키기에는 충분한 것이다. 그것도 망국의 한을 품은 마의태자의 역사는 이광수에게 민족 정체성을 구성할 수

18) 최호근,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 85집, 2003, 170쪽.

19) 최호근, 위의 글, 165쪽.

있는 기억이자,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자료로서 기여한다. 한편 이광수는 마의태자의 우국충정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의태자가 살았던 궁터를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마의태자의 계시던 궁터라 합니다. 장이 서문, 광이 이문이나 될 만한데 석축의 가기(家基)가 그냥 남아 있고 서벽쯤 하여 났던 냇이 저절로 늙어 정면의 섬돌을 베고 누워 죽어, 푸른 이끼와 누른 버섯이 온 몸을 싸고 섬돌도 우단같이 부드러운 파란 이끼에 푸근푸근하게 쌓였습니다. 마치 불우한 태자의 입김과 손김을 뽁뽁 싸 두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이 있던 곳에는 천여년 동안 떨어져 썩은 나뭇잎과 풀에 발이 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방이 셋, 부엌 한칸-만일 당시의 건축법이 지금과 같다면 이러한 집이었을 듯합니다. 거기 태자와 종자 수인이 숨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이 '아랫 대궐'이외다.<sup>20)</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광수는 명경대 근처 태자궁터를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길이를 재고, 그곳을 '아랫 대궐'로 칭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국토의 표상행위로 새롭게 민족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왕족이 살았던 자취를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우리의 금강산은 바로 민족정기를 가진 영산으로 민족의 역사가 곳곳에 살아 숨쉬는 국토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다. 이광수는 『금강산유기』에서 광활한 대지 '철원'에서 '궁예'를 생각하고 대륙을 지배했던 역사와 나라를 잃을 운명에 처한 '마의태자'를 떠올렸다. 이는 역사를 통해 대중의 '집단기억'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한 것이다. 즉 기억의 환기를 통해 사라진 민족을 새롭게 구성해내고 있는 것이다. 즉 잃어버린 국토의 현장에서 공통으로 기억된 역사를 상기시키는 이광수의 기행문에서의 여정은 1920년대 문화 민족주의를 주창했던 이광수의 면모

20) 이광수, 『금강산유기』, 앞의 책, 23쪽

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광수의 기행문에 나타난 1920년대 문화 담론은 공유된 기억과 공통의 역사를 통해 민족성을 고양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일제의 문화정책이 추구한 정신주의를 적극적으로 모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의 여행지에서 수행적 과정에서 나타날 때는 그 내면의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일제의 식민주의 담론이 정신의 개량화로 내선융화를 바란 것이라면, 이광수의 문화 담론은 조선인들만이 공유된 기억을 회복하여 민족을 복원하자는 것이었다.

## 2. 생활 기행의 의미와 국토의 재인식

이광수의 금강산 기행의 동기는 앞장에서 밝혔듯이 제사장으로서의 심경과 자신의 삶의 진로를 잡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복도훈<sup>21)</sup>은 이광수의 금강산 여정을 통해 발견한 것은 자신의 숙명론이며, 이것은 불교로 치장한 허무주의의 여정을 밟아간 것이고, 자신과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가져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물론 『금강산유기』에는 불교적 가치관과 허무주의적 사상들이 곳곳에 비춰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실용적 인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이 기행문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즉 불교적 가치관과 자연에 대한 실용주의적 태도는 그의 ‘삶의 진로’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금강산유기』에서 나타나는 이광수의 불교적인 사상의 면모와 자연에 대한 실용주의적 인식은 둘 다 이광수의 삶의 진로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티브이다.

이 기행문에 나타난 불교적 사상은 이광수의 삶에서 가장 비극적 면모를 보였던 1940년대 일제의 신체제론을 수용하면서 그 양상이 표면으로 드러난다. 이광수는 불교의 인과론과 인연론을 통해 자신의 황민화론을 합

21) 복도훈, 앞의 논문, 34~55쪽 참고.

리화하는 기제로 사용하였다. 이에 반해 자연에 대한 실용적 인식은 그가 평생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를 ‘문사가 아닌 지도자’로 위치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즉 생활 개조를 통해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던 이광수의 평생의 사업인 수양동우회와의 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다. 몇몇의 논자들이 이광수가 자연에서 생활과 관련하여 실용적 인식을 보이는 부분을 ‘미’적 인식과 관련시켜 논의하는데 자연에 대한 실용적 인식이 미의 우회적 표현<sup>22)</sup>이라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 장에서 이광수가 ‘일생의 진로’로 여겼던 자연에 대한 실용적 인식을 그가 당대에 펼쳤던 문화적 민족 담론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광수는 『금강산유기』의 첫 여정인 남대문역에서 출발하여 대광리라는 소촌역에 도착하여 일망무제한 고원을 보고 소를 키우는 목장을 만들어 조선인에게 소고기와 우유를 먹여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나는 이 일망무제한 고원을 보고, 또 그것이 대부분 처녀지의 원초인 것을 보고, 여기서 소를 많이 길러서 경성인사에게 맞히고 자양 많은 우육과 우유를 공급할 것을 공상하고 신문에 낼 광고문까지 지어보았다. (중략 인용자) 과연 조선동포는 혈분과 지방이 부족합니다. 소위 기부족 혈부족입니다. (중략 인용자) 그냥 오무작거리고 꾸물거립니다. 손바닥에 침을 탁 뱉아 쇠뿔치 같은 주먹을 불끈 쥐고 민족 만년의 진로를 뚫어 열리라는 의기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족증 들린 이들에게 처녀지의 신초와 신천을 먹고 자란 우육과 우유를 장복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sup>23)</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광수는 초원을 보고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느

22) 복도훈, 위의 논문 참고.

23) 이광수, 『금강산유기』, 앞의 책, 15쪽.

껴야 할 미적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이전에 생활에 대한 인식, 개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조선 민중이 피폐한 삶으로 인해 드러난 문화를 창조하는데 이바지 못하고, 문명 개발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부족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식민지인으로서 혈기부족과 영양부족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이 조선 식민지 현실에 맞지 않는 허황된 생각으로 비칠 수도 있다. 목장에서 길러낸 소의 우유와 고기들이 과연 피폐한 조선인의 입으로 갈 수 없는 당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 부분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광수는 이 기행문의 여정에서 단지 근거 없는 낙관적 사고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실로 비참한 농민생활이 생각됩니다. 십삼도 그 많은 산곡에 이러한 생활 없는 곳이 없고, 그도 부족하여 서북간도까지 들어가서 이러한 곤궁한 생활을 아니하지 못합니다. 서간도라하면 일망무제한 평원, 옥야만리(沃野萬里)에 주인없는 땅 뿐인 줄 아는 이가 많지마는 우리 동포들이 유리하는 곳은 대개 여기와 같은 산곡이외다. (중략-인용자) 아무 생활의 안전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포가 수백만에 달할 것이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뼈가 저립니다.(중략-인용자) 진실로 빈궁한 농민은 반드시 나타한 자가 아니외다. 그네의 대부분은 일생을 두고 -칠, 팔세의 아(兒)시에 아이를 업고 소를 먹일 때로부터 육칠십 노령에 다시 아이업고 소를 먹일 때까지-나타(懶惰)는커녕 일주일야의 한유도 맛보지 못하고 그네가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뼈가 휘도록 일하고 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네는 일생에 배부른 날 하루도 보지 못하고 누더기 속에서 배고파 우는 자녀들을 보면서 마지막 눈을 감아합니다.<sup>24)</sup>

이광수는 철령을 넘어오면서 깊은 산곡에서 살고 있는 산채를 발견하고 식민지 조선 농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고 있다. 조선 농민들이 가

24) 이광수, 『금강산유기』, 앞의 책, 19~20쪽.

난하고 굶주림의 원인이 그들의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평생을 죽도록 노동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한 삶의 구조, 그것이 바로 식민지 수탈 경제구조라고 직접적으로 평가를 내리지는 않지만, 서간도나 서북간도로 떠나게 된 계기가 바로 식민화와 관련되므로 필자가 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행간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광수의 이러한 식견은 1910년대 만주와 시베리아 치타까지 직접 유랑해본 경험 때문일 것이다. 농민이 평생을 죽도록 일해도 배부를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이광수가 단순히 자연에 대한 낙관적 개발 의지만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었던 시대에 국토 기행의 여정에서 이광수는 일제 치하의 치안 상황과 금강산의 관광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윤은 대부분 일인이 차지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지적하고 있다.

『조선인의 전도나 인류의 전도에 대하여 무슨 예언 할 것이 없습니까?』  
 한즉, 그는 빙긋이 웃고 고개를 두어번 흔들며, 『그런 것에 관하여 미상불 할  
 말도 있지요.』 하고 잠깐 주저하다가, 『사람이란 화식의 독으로 심령이 둔탁  
 하지만 않으면 앞일을 내다 볼 수 있는 것이외다.』 하여, 자기가 조선인의 전  
 도나 세계의 전도를 모르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 후에 다시 빙긋 웃고,  
 『그러나 말 아니하는 것이 좋지요.』 합니다. 안면 헌병분대에서 육본 것을 기  
 억하는 모양이외다. 이러한 선인도 경찰이 무서워 입을 못 벌리나 하면 경찰  
 의 세력이 진실로 큰 줄을 알겠습니까.<sup>25)</sup>

다리는 아프지마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만물초 구경을 하리라 하여 다정  
 주인인 일인더러 안내자를 구해달라 하나 번번이 놓고 있는 조선 사람들은  
 갈 생각도 아니합니다. 그 일인은 우리를 무엇으로 알았는지 『참말 요보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하면서라도 무슨 일은 싫어하니.』를 일어로 몇 번씩이  
 나 반복할 때에 나는 얼굴에 모닥불을 퍼붓는 듯하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네

25) 이광수, 『금강산유기』, 위의 책, 62쪽.

더러, 『여보시오, 노실 것이 무엇이요. 한번 갔다 오면 돈이 생기질 않소. 안내하기를 배우시오 그려.』 한즉, 그네는 비슬비슬 피해가면서, 『내 밥먹고 내가 싫다는데 웬 잔소리야』합니다. 미상불 옳은 말이외다. 미는 심히 딱한 옳은 말이외다.<sup>26)</sup>

위의 첫 번째 인용문은 이광수가 구룡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선인과 대화에서 나온 말이다. 산에서 살고 있는 선인조차도 조선의 향후 정세에 대해서는 함구할 수밖에 없는 정세임을 지적하고 있다. 1920년대 일제의 문화정책은 무단정치와 달리 치안 정책이 핵심이었다.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일제의 치안 구조는 오히려 1910년대의 삶보다 더 조선인의 삶을 규율 통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광수도 그 의미를 파악하고 선인의 대답을 더 추궁하지 않고 가던 여정을 다시 진행한다.

두 번째 인용문은 금강산 관광정책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결코 토착 조선인이 아니라 이주한 일본인임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광수가 만물초로 가는 과정에서 안내자를 구하고 싶었으나 구하지 못한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조선인의 게으름에 대해 비판한 부분이다. 그러나 문면을 꼼꼼히 살펴보면 금강산을 개발하면서 얻게 되는 이득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인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의 의도에서 비롯되지는 않았지만 이 장면은 당대 조선의 개발 정책으로 오히려 이득을 본 사람은 이주한 일본인임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로써 더 의미가 있다. 여정의 서술 과정에서 수행적으로 드러나는 식민주의 정책의 이중성과 실체가 밝혀지는 부분이다. 그 험한 만물초 여행길 안내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소개비와 약값 치르는데 다 쓰인다는 것을 당시 토착민인 조선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서술 과정에서 드러나는 수탈적 경제 구조의 이면을 볼 수 있는 광경으로서 의미

26) 이광수, 『금강산유기』, 위의 책, 56~57쪽.

가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인 자체에 대한 이광수의 인식은 식민주의적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반면, 일본인을 대하는 이광수는 식민지인의 무의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수는 금강산을 탐방하고 난 후 짧은 기행문을 『동아일보』에 계속해서 실게 된다. 『초향록』(1923.9.9~17)으로 묶인 기행문에서도 이광수의 자연에 대한 생활적, 실용적 인식은 강하게 제시된다. 『초향록』에 실린 ‘길뒹기’와 ‘살계백반’이라는 글에서 기행의 여정에서 포착한 생활적, 실용적 인식이 잘 나타난다.

길! 지금 나의 가는 길에 농부 칠, 팔인이 이번 수재(水災)에 무너진 길을 닦고 있소. 더러는 가래질을 하고, 더러는 개천에 흙다리를 놓고, 더러는 새로 보토했던 데를 밟고 있소. 그네의 「등걸이」, 「잠방」이는 땀에 찌들고, 그네의 별에 거른 얼굴과 팔뚝에서는 비지땀이 흐르오. 아! 이등도로, 삼등도로가 저 농부들에게 무슨 상관이오? 비록 진시황의 만리장성과 수양제의 삼천리 운하와 같이 무용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봄내, 여름내 농사에 고로(苦勞)한 그네들더러만 길을 닦으란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네는 이슬에 젖기를 두려워할 옷도 있는 것도 아니요, 개천에 젖기를 두려워할 마른 버선 신발이 있는 것도 아니요, 타고 다닐 자동차나 인력거가 있는 것도 아니외다. 농사해 먹고사는 그네에게는 논으로 통하고 밭으로 통하고 나뭇간으로 통한 길만 있으면 그만이요. 이등, 삼등의 대도로는 그네를 빨아먹는 기생충들이 거드럭거리고 다니는 길이오. 그러나 교묘한 사회제도는 이 모든 길을 농민으로 하여금 닦게 하는 구료. 왜 저 관리, 지주, 상인, 공업자들로 하여금 닦게를 못하나요? 농부여! 그대는 천하 사람을 먹고 입히고 그리고 그네의 다닐 길을 닦아주는 구료. 아아, 원컨댄 저승이나 있과저. 천당 극락이나 있어서 내생에나 그대네의 안락을 얻을과저!<sup>27)</sup>

27) 이광수, 『초향록』, 위의 책, 149쪽.

위의 인용문에서 이광수는 부당한 노동을 강요당하는 농부들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사회제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평생을 일에 묻혀 사는 농민이 자신과 상관없는 길을 왜 닦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당대 관리, 지주, 상인, 공업자들이 그 길을 직접 닦아야 한다고 반문하고 있다. 특히 그들을 농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이라는 극단의 표현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면서 사회제도의 교묘함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식민지 사회제도와 경제구조의 모순을 농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살계백반(殺鷄白飯)’에서는 직접적으로 제도 자체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진실로 제도란 이상한 물건이다.-제 손으로 하는 놈은 밥을 굶고 가만히 놀고 있는 놈은 배 부르고..... 그럴 것이오. 조선 안에서 놀고먹는 사람(농부 아닌 자)만 하여도 그것들을 먹이기에 농부들의 뼈가 휘러든, 게다가 멀리서 온 수십만의 사랑손님까지 먹여 살리려니 오죽하랴. 농부들이 굶는 것이 당연할 것이오.<sup>28)</sup>

위의 글에서는 ‘제도’자체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 조선인 중에서 놀고먹는 관리들과 이주한 일본인들까지 먹여 살리는 농민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현실, 이 가혹한 현실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 특히 이주한 일본인을 사랑손님으로 표현하면서 더욱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광수는 기행의 여정에서 자연의 묘사와 풍경의 아름다움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대중들의 삶과 생활에 밀착하여 당대의 문화와 제도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모순점을 지적한다. 일제가 안착해 놓은 문명의 기반위에서 이루어진 여행에서 일제의 문명화와 문화정책이 가져온 불합리한 제도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8) 이광수, 『초향록』, 위의 책, 151쪽.

이광수의 1920년대 기행문에 드러나는 자연에 대한 생활적 인식과 실용적 인식은 미적 인식의 우회적 표현이기보다 자신의 ‘삶의 진로’를 보여준 것이자 1920년대 이광수의 문화 민족 담론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일제는 정신을 통한 조선인의 내선융화로의 문화론을 강요했지만,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중반까지 이광수가 주장한 문화적 민족 담론은 일반 대중과 농민이 주체가 된 집단이 당대의 사회제도와 생활을 개조하여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민족 담론은 일제의 문화론을 전유하면서 형성된 것이지만 일제의 문화론과는 배태되는 양상이 달랐다. 조선의 문화와 생활, 민족성 위에 형성된 당대 이광수의 민족 담론은 식민주의 사회제도의 모순성과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특히 기행문의 여정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양상들은 이론의 제시가 아닌 실상을 직접 목도한 후에 인식된 것으로 다른 장르와 달리 독자들에게 식민지 문화정책의 모순을 더욱 강렬하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 IV. 순례로서의 기행과 ‘역사 내러티브’의 구성

조선에서 행해진 1930년대의 기행의 패턴은 주로 일제의 동화정책의 하나로 고적조사 사업이나 학생들의 수학여행, 탐승단 조직 등으로 대부분 일제에 의해 기획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의 영토가 민족의 은유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한 관광지로써 전락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광수의 1930년대 기행문은 문화 담론의 연장선에서 행해진 것으로 역사적 인물의 흔적이 있는 곳의 순례를 통해 역사를 재구성하는 내러티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1930년대 이광수의 기행문으로는 「충무공 유적순례」(『동아일보』, 1930. 5.2 1.~6.8), 「신주승전봉과 권율도원사」(『동아일보』, 1931.8.13~18) 「노령정경」(『동광』, 1931.10), 「함포풍경」(『동아일보』, 1933.4.19.),

『만주에서』(『동아일보』, 1933. 8.9.~23.), 『단군릉』(『삼천리』, 1936.4)등이 있다. 이 시기에 작성된 해외 기행문들은 대부분 식민지 조선인의 입장에서 그 지역의 모습과 사람들의 삶을 짧게 기록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들 기행문 중에서 주로 국내 순례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광수의 순례기로서의 기행문에서는 두 가지의 특징을 보여준다. 하나는 민족의 역사 흔적을 제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당위성을 드러내어 민족을 복원하고자 하고, 나머지 하나는 여정에서 나타나는 역사의 기억을 ‘역사 내러티브’로 구성하여 민족의식을 생생하게 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충무공 유적순례』는 이순신의 위패를 관우의 사당에 모신 것을 보고, 조선의 치자 계급에 비판하는 부분에서 역사 보존의 당위성이 제시되고 있다.

만일 조선인이 다 이러한 노예적 근성을 가지고 있다 하면 나는 금일부터 조선을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소수 가명인계급(假名人階級)의 비비(卑鄙), 노예적 사상이요 일반 조선인의 사상은 아니다. 이 소수 지배계급은 왕권과 민의를 누르고 자가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존명사상을 물렸다. 우리 조선인인 충무공의 위패에 『유명수군도독조선국(有明水軍都督朝鮮國) 구(九)자를 가하는 것이나 (중략 인용자) 『황조팔사(皇朝八賜)』라 하여 명제(明帝)가 증한 작위와 물품을 충무공 위패보다도 더 존중하는 것이다. 이 무리의 간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우리 충무공으로 하여금 한장(漢將) 관우의 신자(臣子)로 삼으니, 놈들의 죄악이 어사위성(於斯爲盛)이라 할 것이다.<sup>29)</sup>

조선의 위정자들이 중국인 명을 섬기는 사대사상이 심각함을 개탄하고 있다. 위의 글을 남기면서 이순신의 위패를 관우 사당에서 독립시키고, 새

29) 이광수, 『충무공유적순례』, 위의 책, 168쪽.

로운 세대의 조선인에게는 부패한 사상의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분개하고 있다. 조선의 민족적 영웅인 이순신의 유적 탐방에서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고 민족의 역사를 복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순례기에서의 이러한 비판적 서술은 독자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 민족의 영웅 이순신을 숭배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1936년에 평양의 단군릉을 순례한 『단군릉』에서는 일제가 정책적으로 평양을 ‘낙랑군평양’으로써 의미를 부여해 많은 일본인과 조선인들을 관광하게 한 것과 달리 이광수는 이곳 평양에서 낙랑의 유적이 아닌 고조선 ‘단군릉’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인들에 대해 심각하게 비판하고 있다.

바로 룡(陵) 곁에 집을 짓고 사는 촌민까지도 이 높으신 조상의 룡을 고맙게 생각할 줄을 몰라서 계견(鷄犬)으로 하여금 밟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송송(悚悚)한 일입니다. (중략 인용자)유식한 체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제 멋대로 단군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고, 단군릉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라 하시오. 그러하더라도 우리에게 국가생활을 처음으로 주시고 삼백육십사의 문화생활을 처음으로 가르치신 단군은 엄연한 실재시오, 또 단군이 실재시면 다른 데 그 어른의 룡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동안 강동의 단군릉밖에 우리가 단군릉으로 생각할 곳이 없지 아니합니까. 그러므로 강동의 단군릉은 우리 시조 단군의 룡으로 존송하고 수호할 것이 아닙니까.<sup>30)</sup>

이광수는 평양의 단군릉이 훼손되어 가고 외면당하는 모습에 분노하며 민족의 기원이자 조선 문화의 발상지인 평양의 단군릉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대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낙랑군평양’의 이미지로 부각시켰고, 당시 고도인 평양은 ‘단군릉’이 존재하고 성천에 ‘동명관’이 있는데도 조선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즉 일제의 기획에 의

30) 이광수, 『단군릉』, 위의 책, 183쪽.

해 제대로 된 의미를 부여 받지 못한 평양의 단군릉에 대해 이광수는 민족의 시조로서, 기원으로서 당위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소위 ‘유식한 체하는 무리들’에 의해 단군릉의 존재가 의심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두말할 것 없이 ‘낙랑군평양’으로 기획하고 정책화시킨 일본인들이다. 이들의 왜곡된 정책과 상관없이 우리 민족에게 최초의 국가생활을 하게 해 준 단군과 단군릉을 잘 보존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광수의 순례로서의 기행문의 중요한 특징 중 다른 하나는 여정에서의 역사 서술이 ‘역사 내러티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충무공유적순례』는 충무공 관련 유적을 탐방하고, 유적지와 관련된 사건을 서술하고, 당대 이순신이 남겼던 난중일기의 역사적 실증자료를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당대의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인 양 독자들에게 생생함을 전달하고 있다. 또 이순신이 자필로 쓴 ‘난중일기’를 제시함으로써 ‘사실 기록’으로서 역사적 실증성이 더욱 부각되어 기행문을 읽는 독자에게는 조선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과 민족 정체성을 갖는 계기로도 작용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광수는 이순신의 영웅성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당대의 상황을 ‘역사 내러티브’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밤이 삼경이 지나고 사경이 됨에 적함이 소파(燒破)된 자 이백여척, 아군의 손해도 불소(不少)하였으나 전쟁은 마침내 아군의 승리가 되어 패여(敗餘)의 적함이 남해로 도주할 때, 때는 사경 먼동이 흰히 트려할 때에 명선이 일본함대에게 포위되어 등자룡(鄧子龍)은 전사하고 도독 진린(陣麟)이 장차 위태하려 함을 보고 공은 배를 놓아 몸소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손수 북을 두드려 진린은 구출하였으나 이때 공은 우흉에 적환을 맞고 「내 죽었던 말을 말아라, 한 마디를 남기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이기고 몸은 죽었습니다.<sup>31)</sup>

31) 이광수, 『충무공유적순례』, 위의 책, 163~164쪽.

중로에 아산에서 도례제사 정철을 만나니, 정철은 공의 뜻을 못마땅히 여겨 돌아가 맡은 곳이나 지키기를 명하였다. 그러나 공은 「국수가 적의 손에 있고 군부가 갈 바를 잃었거늘, 대감은 이곳에서 피란을 하고 계시요.」하고 석을 취하고 일어 군(軍)을 끌고 북상하여 수원독성에 주둔하다가 이월에 정병 일만을 이끌고 한강을 건너 행주산성에 배수진을 쳤다.<sup>32)</sup>

위의 첫 번째 글은 이순신을 대상으로 한 역사 소설에서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서사화하고 있는 것이다. 당대의 이순신이 죽던 마지막 해전을 직접 눈으로 본 듯이 묘사하여 ‘역사 내러티브’로 구성한 것이다. 두 번째 글은 권율을 대상으로 한 순례 기행문에서 서술한 것이다. 위 글은 마치 권율이 직접 정철을 만나는 과정과 군을 이끌고 행주산성으로 가는 모습이 소설을 읽듯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역사 내러티브를 통한 사실 효과적 재현으로 역사적 사실임을 극적으로 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과거를 현재의 일처럼 생생하게 받아들이게 한다.

이러한 기행에서의 역사 서술은 현재의 상황에 맞게 과거를 복원할 수 있으며, 기억으로 현재를 읽음으로써 현실에 대한 상황파악과 대중의 민족 의식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치성이 발현될 수 없는 시대에 역사 내러티브를 통한 대중의 민족정체성 구현은 유용할뿐더러 효과적이기까지 하다. 즉 ‘역사 내러티브’는 언어로 이야기된 집단 기억의 표상인 것이다. 언어로 표현된 순간 그 기억은 담론으로 형성된다. 이광수가 기행의 여정에서 발견한 역사와 그 역사의 발견을 통해 다시 언어로 재구성된 역사 내러티브는 당대의 민족 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즉 “기억의 대상은 과거 그 자체라기보다는 텍스트이다.”<sup>33)</sup> 집단 기억은 독자, 대중에 의해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텍스트와 마주하는 독자와 대중에 의해 자신

32) 이광수, 『신주승전봉과 권율도원사』, 위의 책, 169~170쪽.

33) 양호환, 『집단기억, 역사인식, 역사교육』, 『역사교육』 109집, 2009, 13쪽.

을 구성해내고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광수의 기행문에서의 역사 서술은 ‘역사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조선인의 집단기억을 생성하여 전파하는 문화 담론의 텍스트로 기능하는 것이다.

순례로서의 기행문에서 이광수는 주로 민족의 기원과 민족의 영웅, 민족 정체성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또 기행의 여정에서 만나는 역사의 기억들을 ‘역사 내러티브’로 구성하여 의미를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역사 내러티브로 구성된 기행 서술의 과정 끝에는 ‘역사 소설’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이광수는 『충무공 유적순례』를 마치고, 1931년 6월 『동아일보』에 역사소설 『이순신』을 연재하기 시작하여, 1932년 4월에 완성한다. 또 『단군릉』에 대한 기행문을 작성하고, 일제의 신체제론을 펼친 암흑기를 거쳐 해방 후 『사랑의 동명왕』이라는 역사소설을 탈고한다. 물론 『금강산유기』이후 『마의태자』의 탄생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sup>34)</sup> 결국 민족의 기원을 찾고 민족의 영웅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기행의 역사 서술은 ‘역사 내러티브’로 구성되면서 역사 소설로 이어진 것이다. 이광수가 역사로 과거의 기억을 새롭게 구성한 첫 번째의 방식이 기행 서술에서의 ‘역사 내러티브’였다면 그것의 완결은 바로 ‘역사 소설’의 탄생인 것이다.

1930년대에 집중적으로 작성된 순례로서의 기행문도 ‘역사’의 기억을 통해 민족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역사 보존에 대한 당위성 표출과 기행 서술에서 ‘역사 내러티브’로 구성하는 방식 모두 이광수가 당대의 기행문에서 추구한 민족 담론의 한 양상인 것이다.

34) 본고에서는 기행문의 역사 서술과 역사 소설에서의 역사 서술의 장르상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제외하였다. 본고의 핵심은 두 장르의 역사 서술의 차이점이 아니라 역사를 공통된 기억으로 끄집어내고 있는 ‘역사 내러티브’ 방식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 V. 결론

1910년대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의 이광수 기행문은 식민지 지식인의 인식 구조와 여행의 여정에서 만나는 역사의 기억을 통해 민족을 복원하고자 하는 민족 담론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1910년대의 해외기행문은 식민지 지식인의 이중 인식과 문명의 양가성을 드러냈고, 1920년대 국내기행문은 역사의 흔적을 찾아 기억해내고 민족을 새롭게 복원하려는 양상을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정의 과정에서 자연에 살고 있는 생활인들의 삶의 문제와 제도적 모순을 비판하면서 국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도 했다. 1930년대 기행문은 순례로서의 기행이 주가 되었고, 민족의 정신을 잘 보존해야 하는 당위성을 표출하면서 역사 서술을 ‘역사 내러티브’로 구성하여 상상의 공동체인 민족을 현재화하고자 하였다.

1910년대 기행문인 『상해서』에서 이광수는 문명을 통한 제국의 식민화 논리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인식했으며, 문명을 받아들이는 상해 중국인의 혼성성의 순간, 즉 제국의 질서 내부에 가두려는 문명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의 모습까지도 읽어내고 있다. 한편 『해삼위로서』에서는 제국주의의 위상에 대해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식민지적 무의식만을 여실히 드러냈다. 『동경에서 경성까지』에서는 식민주의적 의식에 의해 야만의 조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식민주의자들의 이중성을 은근히 비판하기도 하였다. 1910년대 기행문에서의 인식의 차이는 야만의 땅에 문명이 이식된 상해와 양인의 모습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준 해삼위와 동경의 여정에서 비롯되는 차이였다. 그러나 ‘새누리의 도안’으로 설정된 문명화론을 전유한 이광수의 민족 담론을 단지 낙천적인 준비론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문명의 이중성을 직시하고 식민지인의 양가성인 전복의 가능성을 읽어내는 이광수의 인식 때문이다.

1920년대 기행문인 『금강산유기』에서 이광수는 번제를 올리는 제사장

의 심경으로서 그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광수는 철원의 넓은 터를 보면서 민족의 공통의 기억인 ‘궁예’를 끄집어내어 사라져가는 민족의 기상을 일깨우고, 상상의 공동체인 민족 형성을 위해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또 그는 과거 역사적 사실 중 현재의 조선 현실과 부합하는 ‘망국에 대한 비분강개’를 보여준 ‘마의태자’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고,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상황에서 재구성하여 대중에게 인식시켰다. 잃어버린 국토의 현장에서 공통으로 기억된 역사를 상기시키는 이광수 기행문에서의 여정은 1920년대 문화 민족 담론을 주창했던 이광수의 면모를 잘 드러내는 것이었다.

한편 『금강산유기』와 『초향록』에서는 자연에 대한 실용적 인식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그의 ‘일생의 진로’인 ‘문사가 아닌 지도자’로의 삶과 연관된다. 생활 개조를 통해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던 모습이 기행의 여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여정에서 만난 농민의 생활에서 당대 사회의 제도적 모순과 식민 정책의 이중성을 발견하였다. 또 관광화로 이루어진 혜택은 토착민인 농민과는 무관하게 이주한 일본인의 몫이 되는 현실, 놓고먹는 관리와 일본인들을 위해 길을 닦아야 하는 농민의 생활에서 당대 문화정책이 가져온 불합리한 제도를 지적하였다. 조선의 문화와 생활, 민족성 위에 형성된 당대 이광수의 기행문에 나타난 민족 담론은 식민주의 사회 제도의 모순성과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1930년대 순례로서의 기행문에서는 민족의 정신을 제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정당성이 표출되었고, 여정에서 만난 역사의 기억을 ‘역사 내러티브’로 구성하여 민족의식을 생생하게 전하고자 하였다. 『충무공유적순례』에서는 이순신의 위패를 관우의 사당에 모신 것을 비판하면서 역사 보존의 당위성을 제시하였고, 『단군릉』에서는 일제의 정책에 의해 제대로 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평양의 단군릉을 민족의 시조로, 기원으로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광수는 여정에서 드러나는 역사 서술을 ‘역사

내러티브'로 구성하여 조선인의 집단기억을 생성하여 전파하고자 하였다. 역사 내러티브는 언어로 이야기된 집단 기억의 표상으로 당대 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순례로서의 기행문에서 역사 보존에 대한 당위성 표출과 기행 서술에서 '역사 내러티브'로 구성하는 방식은 모두 이광수가 당대의 기행문에서 추구한 민족 담론의 양상인 것이다.

결국 이광수의 식민지 전시기에 걸쳐 작성된 기행문은 조선의 국토에서 조선인의 삶과 조선인의 공통된 역사와 기억을 통해 민족 담론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는 문명에 대한 부러움만을 드러낸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 그리고 제국의 권력의 질서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식민지인의 양가성에 대한 인식도 만날 수 있었다. '번제를 올리는 제사장'으로서, '일생의 진로'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서 시작된 기행은 역사의 기억을 통해 민족 담론을 구축하고자 한 식민지 지식인 주체의 민족 복원의 과정이기도 한 것이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청춘』

이광수, 『이광수 전집』 5,9,10권, 삼중당, 1972.

### 2. 단행본

김경미, 『이광수 문학과 민족 담론』, 역락, 2011.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1,2』, 솔, 1999.

고모리 요이치, 송태욱 역, 『포스트콜로니얼』, 삼인, 2002.

Anthony D. Smith, *National identity*, University of Nevada Press, 1991.

### 3. 논문

구인모, 『국토순례와 민족의 자기구성-근대 국토기행문의 문학사적 의의』, 『한국문학 연구』 27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4, 128~152면.

김현주, 『근대 초기 기행문의 전개 양상과 문학적 기행문의 기원』, 『현대문학의 연구』 16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1, 95~129면.

복도훈, 『미와 정치: 낭만적 자아에서 숙명적 자아로의 유랑기-이광수의 『금강산유기』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46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2, 33~59면.

서영채, 『최남선과 이광수의 금강산 기행문에 대하여』, 『민족문학사연구』 24집, 민족문학사연구소, 2004, 242~280면.

양호환, 『집단지역, 역사의식, 역사교육』, 『역사교육』 109집, 역사교육연구회, 2009. 3, 1~35면.

우미영, 『억압된 자기와 고도 평양의 표상』, 『동아시아문화연구』 50집, 2011, 29~56면.

차혜영, 『지역간 문명의 위계와 시각적 대상의 창안-1920년대 해외기행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4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11, 7~46면.

최호근, 『집단지역과 역사』, 『역사교육』 85집, 역사교육연구회, 2003. 3, 159~189면.

**Abstract**

The aspect of the awareness structure of Lee Guang-su<sup>1</sup> travel essay  
and nation discussion

Kim, Kyung-mi

This paper clarifies the aspect of the nation discussion through the memory of the awareness structure of the colony intellectual shown up in the travel essay and history.

In 1910's, <in Shanghai>(상해서) and <in Vladivostok>(해삼위로서), that is his travel essay, show the ambivalence of the dual recognition of the colony intellectual and civilization discussion well. The nation discussion faced up to the duality of the civilization and read the possibility of the colony humanity and justice rollover.

In 1920's, as to his travel essay, there is <the Kumkang Mountains yuki>(금강산유기) and <choehangrock>(초향록). These works have the colonialism culture to and try to restore the nation through the new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His culture discussion tries to uplift the nation for the common memory.

And the practical awareness about the nature shows the route of his life. There is the relation with the nation discussion. For the public, the main body was and it remodelled into the then social system and contradiction and tried to form the nation of culture discussion of the korea.

In 1930's, his travel essay has the purport of the account of travels as the pilgrimage. And it has the function as the narrative reconstructing the history. There is <chungmugong visiting the relics>(충무공유적순례) and <dangunreung>(단군릉) for the work.

Key-words : Lee Guang-su, ambivalence, restore the nation, nation

discussion, history, narrative, common memory

필자: 김경미

소속: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주소: (703-061)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2동 109-5번지

전화번호: (직장) 053-950-7279 (휴대폰) 010-8598-7928

이메일: undertheneck@hanmail.net

이 논문은 2012년 11월 14일 투고되어  
2012년 12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12월 11일 게재 확정됨.

